

● '99/04/20 임야 화재

20일 10:10분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인근 소백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2.5ha를 태우고 3시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 군인 등 300여명과 산림청 헬기 2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약초채취자들이 잘못버린 담배불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04/29 지하철역사 화재

16:11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지하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승객과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기계실에서 냉각탑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보온용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독성 연기가 역사 안에 가득 차는 바람에 지하2층 승강장에 있던 승객과 상인 등 수백명이 지상으로 급히 대피했다.

소방서측은 소방차 60여대와 소방관 1백70여명을 투입, 40여분만에 진화했으나 일대 교통이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 '99/04/30 '도깨비불' 악령

지난 2월에 이어 서울 도심지역에 '도깨비불'

악령이 되살아났다.

30일 새벽 서울 강동구 길1동 주택가 7백m 반경 안에 1시간30분동안 원인모를 화재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이날 02:20분쯤 강동구 길1동 주택가 앞에 주차해 놓은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이 불에 탄 뒤 8분만에 꺼진 것을 비롯, 02:41분에는 처음 불이 난 지점으로부터 6백m 떨어진 주택가에 세워둔 베스트 승합차에도 불이 붙어 6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다시 02:48분 2백m 떨어진 지점에 세워둔 포터 1t트럭을 완전히 태우고 14분만에 꺼졌으며 03:34분에는 8백m 간격을 두고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의 1층을 태우고 21분만에 꺼졌다.

● '99/05/02 주택 화재

0:0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P슈퍼마켓 2층 박모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집 내부 7평 가량을 태우고 3백여 만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다음 1시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특별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누전에 의한 화재일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사망 1명, 부상 1명.

● '99/5/31 바지선 화재

10:59분경 부산시 사하구 대양조선소 부두에서 수리 중이던 바지선 덕암 5호(2천t급)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배가 두동강 나 앞부분이 침몰했으며 철판과 파편이 수 백미터 떨어진 아파트단지까지 날아가 수십 채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부근 산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길이 10m 가량의 철판이 30여m 높이로 솟아오르고 수많은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사고선박은 선주가 작업 인부들을 고용해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바지선내 식당에서 LP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사망 1명, 부상 4명, 실종 2명.

● '99/5/31 제철공장 화재

12:50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제품 녹 제거업체인 D제강 포항산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자동화 기계 등 공장 내부시설 1만8천여㎡ 중 1천3백20여㎡를 태워 2억3천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다음 이날 13:30분께 진화됐다.

회사 관계자는 "철근 녹 제거 설비를 설치한 뒤 직원들이 공장을 모두 비워두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장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간 사이 가열된 용접봉의 불티가 인근에 있던 인화 물질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 '99/4/26 호텔 폭발화재,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부근 트베르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인투리스트 호텔 20층에서 26일 14:35분경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8명이 부상했다고 모스크바 경찰이 밝혔다.

모스크바 경찰 대변인은 크렘린을 마주하고 있는 이 호텔의 20층 종업원용 승강기에서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승강기 옆에 있는 카페가 파손됐으며 인근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고 전했다.

● '99/5/29 터널 화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 알프스 산악지대의 타우에른 터널 안에서 이 날 차량 폭발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페인트 수송 화물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폭발, 불길이 터널 전체로 번져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대는 사고 당시 터널 안에는 12대의 화물트럭을 포함, 34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상당수 차량들이 벌써 1천도에 달하는 고열로 완전히 녹아 버렸다면서 현장을 수습하는 데만도 수 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으며 수십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